

전라중 2020-22호 2020년 4월 21일			<h1>전라중 소식</h1>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학교 전화 063)252-2758
담당부서	교육기획부			

전라중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특수학급 담임교사 이수아입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새 학기를 맞이해야 하는 이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모두 집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힘드신지요. 이에 늘푸른교실에서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주간(장애인의 날_4.20.)’을 맞이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학급 등에 관한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듯 학교에서 아이들은 나와 생김새, 성격, 특성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혹시 자녀가 학교 내에서나 학급 내에서 만난 특수교육대상학생 혹은 장애학생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요?

아래 이야기들을 읽어보시고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 알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교육 그리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개인적 특성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 역시 개개인에 따른 교육적 요구가 다릅니다. 하지만 특정 교과 등의 교육과 수업활동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됩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개인 수준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라중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지요. 만약 야구부가 아닌 학생들이 야구부 선수들과 함께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는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미 선수 생활을 통해 훈련에 적응 되어있는 야구부 학생들에 비해 야구부가 아닌 학생들은 운동 수준과 특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훈련을 따라가기가 무척 힘들겠지요. 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수교육’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낯선 여러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도 말 할 수 있지요.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장소가 바로 특수학급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늘푸른교실’이라고 부릅니다. 늘푸른교실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외에도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으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터인 동시에 점심식사 후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배움과 휴식의 공간입니다.



늘푸른교실은 학교 1층, 교무실 옆에 있어요☺

2 부모의 편견 없는 인식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지요. 부모님의 인식은 곧 아이의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친구를 놀리고 외면하기보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이 바로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불어넣어 주세요.

3 이렇게 알려주세요

- ①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 ② 장애인이란 말 대신 그 친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 줄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 ③ 만나면 모른 척 하지 않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 ④ 지나친 도움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며 지켜봐 줄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 ⑤ 친구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바른 행동을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어머! 정말? 농치기 쉬운 상식 바로알기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서로 같은 말인가요?

답은 ‘다르다’ 입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중에는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이 아닌 학생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신 친근한 표현으로 장애우라고 부르면 더 좋은가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장애인을 완곡하게 부르는 표현으로 ‘벗 우(友)’를 사용하여 ‘장애우’라고 부르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애우는 타인이 지칭할 때만 가능한 표현으로 그 안에는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우’라는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장애학생이 아닌 사람은 일반학생 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답은 ‘비장애인’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 일반인, 정상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앞의 두 단어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중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학교로 문의(특수학급: 070-4916-6716)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라중학교 늘푸른교실